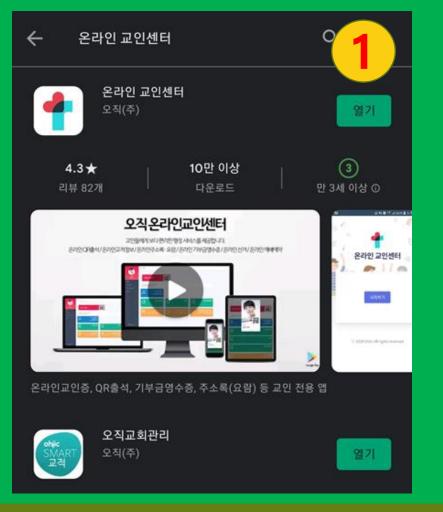
'말씀과 함께'

모바일버전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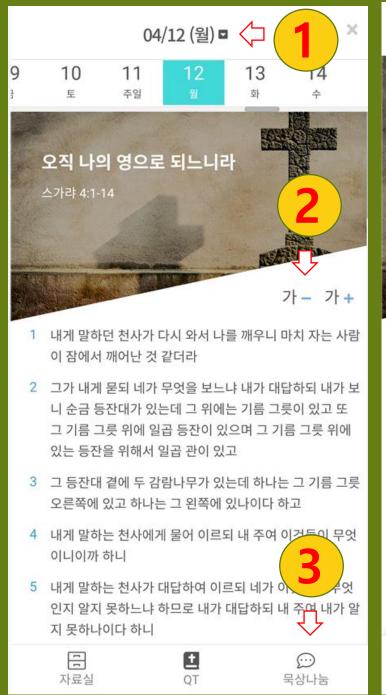






- 1 앱스토어에서 '온라인 교인센터 ' 를 설치 후 로그인을 합니다.
- 2 'QT 말씀과 함께'를 선택 합니다.
- 3 말씀과 함께 표지와 큐티 제목과 성경구절이 보입니다.

- 1 날짜를 선택하시면 원하시는 날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2 본문 및 해설의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3 묵상나눔게시판으로이동합 니다.
- 4 성경구절을 선택하시면 <mark>밑줄</mark> 기능과 함께
- 5 묵상하기 버튼이 생성되고 묵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 1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 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 2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단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 3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 4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 이니이까 하니
- 5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 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 지 못하나이다 하니









- 1 말씀보기를 선택하시면 오늘큐티 본문을 보실수 있습니다.
- 2 개인묵상/나눔묵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개인묵상: 묵상내용/적용하기는 본인만 볼 수 있으며, 기도내용은 담당 교역자도 볼 수있습니다.
 - * 나눔묵상: 마을 및 부서 소속 성도님들이 다함께 묵상 내용/적용하기/기도내용을 볼 수 있도록 공유됩니다.
- 3 본인의 소속 마<mark>을 및 부서를</mark> 나타냅니다. (<u>나눔묵상시에</u> 보여지는 그룹입니다)
- 4 묵상내용/적용하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 5 기도내용을 남길 수 있습니다.(개인묵상을 선택하시고 기도제목을 남기시면 담당교역자만 볼 수 있습니다)
- 6 저장하기를 선택하면 적용이 됩니다.



- 1 묵상나눔버튼을 선택하시면 묵상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 2 개인묵상/ 나눔묵상을 선택하여 볼 수 있습니다.
- 3 나눔묵상을 선택하시면 소속 마을/부서 성도님 들의 묵상글을 볼 수 있습니다.
- 4 성도님들의 나눔 묵상글에 기도합니다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 5 ··· 버튼을 선택하시면 본인의 글에 수정/삭제 가 가능합니다.







岩叶 学程

새봄이 왔습니다

발행인 칼럼 | 유진소 담임목사님

겨울이 지나고 맞이하는 첫봄을 새봄이라고 합니다. 봄이 라는 말도 신선한데, 새봄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정말 너무 나 신선해서 아직 약간 쌀쌀한 느낌까지 듭니다. 그러면서 도 너무 설레고 감사한 마음이지요.

새봄이 왔습니다. 단지 계절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너무 힘들고 혹독한 겨울을 지냈기에 정말 가슴 설레는 새봄을 맞이합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새싹이 돋아나는 생명의 역 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만이 아닌, 온도가 달라지고 주변 의 색깔도 구체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보는



'새봄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을 다시 신선하게 만들고(Refresh), 비범하며(Uncommon), 아름답고(Beautiful), 젊어 보이는(Youthful)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의 여성을 가리켜 이르는 '루비(RUBY)족'을 다듬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가 어찌 그 나이의 여성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사람,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새봄에는 '새봄 신앙인'이라는 말을 만들어 붙이고 싶습니 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 봄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이 부활절이 봄에 있다는 것이 사뭇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의 역사가 시간상으로 봄에 일어났으니 부활절이 봄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 그만이겠지 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힘주신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계절과 부활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창조주의 의도된 설계 같지 않습니까? '다시 힘을 내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봄과 같이 따스한 그런 말씀 같기도 하고요.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들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봄에, 이 부활 절의 계절에, 우리는 소망이라는 생명의 씨앗을 싹 틔우고, 아름다움이라는 우리의 옷을 다시 차려입고, 사명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한 꽃을 피워야 하겠습니다.

어느 해 보다도 힘든 그런 겨울이었기에, 이 봄, 부활절의 계절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 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정말 우리 삶에 다시 살아나는, 다시 아름답고, 다시 생기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봄에 부활절을 배치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가 빛을 발하는 역사가 말씀과 함께 걸 어가는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마태복음 20:29-34 [3월 3일 본문] 찬송가 537장 (구 329장, 형제여 지체 말라)

Ice breaking ▶

< 3월 1주

한 주간의 삶과 감사한 일들을 나누며 마음의 문을 여세요.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세요.

말씀으로 나눔하기

1.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맹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짖었습 니까? (30절)

2. 무리가 꾸짖자 맹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31절)

[나눔 1]

맹인들처럼 영적으로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 더 큰 소 리로 간구했던 체험이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3. 맹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33절)

가정예배(FQS)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찬양하기 그 사랑

< 4월

마태복음 27:11-26 (3월 30일 본문)

나눔하기

었나요? (15절)

- 무리는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길 원했나요? (21절)

- 본문의 무리는 예수님을 몇 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 고 있나요? (22-23절)

- 나의 삶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적은 없나요? 나의 삶을 돌아보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보세요.

▼기도하기 사랑하는 주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은 무리들처럼, 나의 말 과 행동으로 주님을 아프게 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 며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 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께 적용하기 ▶가족이 함께 적용할 내용을 적어보세요.

<mark>자료실을</mark> 선택하시면 말씀과 함께에 수록된 묵상 본문 이외의 내용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